

농촌 기혼 남녀의 자아정체감 및 생활양식에 따른 가정자원만족도 - 경기도 안성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dentity, lifestyle and the family resources'
satisfaction of the rural married person
- focus on the resident at Ansung, Kyonggi-Do -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부교수 이명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이미선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정우

Dept. of Home Management, Hankyong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Lee, Myoung Suk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 Lee, Mi Sun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Lee, Jeong Wo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부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the identity, lifestyle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sources of rural married pers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5 married women and men in Ansu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identity of rural married person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2. Their lifestyl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gender, educational level, job, the type of dwelling, and family income.
3. Their satisfaction with family resourc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educational level, job, the type of dwelling, and family income.
4.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ir identity, lifestyle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sources of the rural married persons.

◆ key word: 자아정체감, 생활양식, 가정자원만족도

I. 서론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 온 우리 나라는 제일 먼저 산업간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지역간의 소득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계층이나 성별, 연령별 불균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김동일 외, 1982). 특히 산업간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 격차는 도시와 농촌으로 생활양식의 분리를 가져왔으며 심각한 이농현상에 의한 농촌문제를 야기시켰다. 부언하면, 농촌생활환경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령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인구 과소화 현상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농업형태가 해체되고 전환되어가는 실정이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농촌지역은 도시적 특성,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대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커져 전통적 가치체계는 급속히 변질되어가고 있다(임창호, 1990).

농업의 공업화, 상업화와 도시화를 배경으로 농촌 생활양식의 독자적인 존립 기반과 특징이 상실되어 이제는 생활양식 면에서 농촌과 도시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백옥인 역, 209). 즉 농촌의 도시화과정은 고전적인 촌락 공동체의 해체와 도시적 생활양식의 침투 및 현대적인 농촌생활양식의 재편과정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농촌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는 아니어서 오늘날 농가생활양식의 보편적인 특징은 전근대적인 농경사회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근대화된 산업 사회속의 도시적 생활양식이 혼재된 괴리속에서 갈등과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농민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외부의 충격과 영향에 의해 피동적으로 구조지위진 데 기인한 바가 크다(김용덕, 1989).

따라서 이와 같은 농촌의 변화에 적응하는 생활주체자인 기혼 남녀에 대한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농촌 생활양식의 형성과 발전에 매우 시급히 요청되는 주제이다. 사람들은 원하고 기대하며, 웃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생활양식의 선택과 실행을 통해 나타낸다. 즉 농촌의 기혼남녀는 결혼생활을 통해 각자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조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하며, 형성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개별가정은 나름대로 가족원 및 다른 가정과의 역할과 관계를 조직하고 자원을 사용하며, 사회적·자연적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인 농촌 생활양식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양식을 유지해 나가는 개인의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 선택에 따른 자원의 사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및 환경의 변화(김동일 외, 1982; 임창호, 1990; 조영희 외, 1997)에 관한 연구와 농촌 여성 및 주부(김영희 외, 1996; 노자경, 1996; 조혜정 외, 1996; 허경옥, 1996; 차성란, 1997; 조희금, 1998)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생활주체자인 기혼남녀의 자아정체감과 생활양식 성향을 조사하고 가정자원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주체적인 농촌 생활양식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기초 자

료를 근거로 미래지향적인 농촌 생활양식을 위한 생활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을 위한 제안을 힘으로써 전반적인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

인간은 자기 동질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부딪히는 내적 충동이나 욕구, 외적인 자극,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수용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통합함으로써 자신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라는 정체감 내지는 통합감을 갖게 된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충동과 욕구, 능력, 역할, 가치 등을 통합하여 추출해 낸 통합된 자기구조에 대한 심상들을 자아정체감이라고 한다(김애순 외, 1997).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아동기에 부모와 동일시의 유용성이 끝날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노년기까지 전생애를 통하여 형성·발전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극심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체감의 형성이 어렵고도 장기간을 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확립된 정체감은 성인기에 이르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숙한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성인은 삶의 철학을 통합시킬 줄 알며 성숙된 자아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성인기의 정체감 발달과정은 두 가지 과정-정체감 동화와 정체감 조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정체감 동화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체감의 틀에 맞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경험을 해석해 버리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정체감 조절이란 개인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적절히 자신의 정체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인기의 정체감 발달은 두 가지 과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하여 내적으로 균형상태를 이루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신태수, 1986).

부언하면, 자아정체감이란 한 개인이 갖는 존재에

의 인식이며 일관성을 갖는 자아의 통합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가를 알며 이와 더불어 자기자신이 특이한 존재인 것과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는 신념과 같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일관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홍성애, 1988). 따라서 적절한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들과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특성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김애순 외, 1997). 심리·사회적 위기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이 어떤 계획을 수행할 때 혹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자원을 자신의 방식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목표달성을 물론 이를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의 변화와 성인기 정체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농촌 기혼 남녀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농촌지역 편부모를 대상으로 한 김경신(1993)의 연구에 의하면, 편부모가족 모두 자존감 및 우울이 중간 점수보다 낮았다고 하였다.

2. 생활양식

사람들은 원하고 기대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생활양식의 선택과 실행을 통해 나타낸다. 생활양식은 개인적 관계를 조직하고 자원을 사용하며 사회적·자연적 환경과 관계를 맺는 지속적인 방식이다. 생활양식은 자신이 생존하는 환경과 자원의 사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생활단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관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생활양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 태도, 신념 및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변화된다. Gross, Crandall과 Knoll(1981)은 광범위하게 말해서 생활양식은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정신과 인간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생활로 나타난 결과이고, 일상생활에서 그

것이 현시 되는 것이며 결혼생활의 형성과 유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Nickell, Rice와 Tucker (1976)는 생활양식은 개인이 인정하는 역할과 역할의 조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 시민, 고용인, 부모, 부부 등이 그 예로서 이러한 역할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만약 이러한 역할 조합이 집단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패턴이 된다면 이것을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부록 1)들은 대체로 생활양식을 AIO변수로 구성하였고, 이들이 소비 및 구매와 같은 가계관리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이었다(이명숙, 199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생활양식 변인이 가정관리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구매와 같은 가계관리행동의 중요한 영향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가정은 가족원의 심리·사회·문화적 차이를 조화시켜 나가면서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한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양식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가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부는 전전한 생활양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정의 전전한 생활양식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정자원의 선택과 사용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므로, 전전한 생활양식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사용은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가정자원만족도

가정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제공하는 생활의 터전이다. 가정은 가족의 가치와 자원을 중심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체계로서 자원을 축적하며 새로운 자원을 얻고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서 변화되어 간다(Deacon과 Firebaugh, 1980).

가정은 매일 매일의 자원 사용을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비해 자원의 사용을 통해 충족되어져야 하는 욕구가 더 많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원하는 정도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은 자원관리에 대한 방법 및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하며, 제한된 자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Hieder(Rowland 등, 1985에서 재인용)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오히려 지각된 환경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정이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같은 자원이라도 가족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자원을 구성하게 되며, 자원사용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가정관리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생활만족도, 생활의 질 등은 자원의 객관적인 양보다는 자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자원 자체의 양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중요하지만 가정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과 지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이 자원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목표달성은 물론 이를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농촌 부부의 자원적정도 결정요인을 연구한 현은민(1994)은 농촌 부인의 경우는 자원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지만, 반면에 농촌 남편의 경우는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농촌 기혼 남녀의 자아정체감은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농촌 기혼 남녀의 생활양식은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농촌 기혼 남녀의 가정자원만족도는 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농촌 기혼 남녀의 자아정체감 및 생활양식은 가

정자원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도구

1) 자아정체감

에릭슨의 발달단계에 따라 Ochse와 Plug(1986; 김영애, 1996, 재인용)가 개발한 19문항 중 여덟 개의 발달단계마다 2문항씩 1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70$ 이였다.

2) 생활양식

선행연구(부록 1)를 기초로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형 8문항, 사회활동지향형 10문항, 경제 및 절약추구형 9문항, 유행추종형 9문항, 서양식 및 신세대가치지향형 8문항 등 44문항을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부록 2)을 통해 유행추구성향 7문항($\alpha = .85$), 사회활동성향 5문항($\alpha = .69$), 절약추구성향 4문항($\alpha = .66$), 자기개발성향 4문항($\alpha = .58$), 도시생활선호성향 4문항($\alpha = .56$) 등 총 24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가정자원만족도

가정자원만족도는 Rice와 Tucker(1986)가 분류한 인적, 경제적, 환경적 자원의 제 영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자원을 선정하여 그들 자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한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적자원 7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76$ 이였고, 경제자원 5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81$, 환경자원 5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75$, 전체 신뢰도는 $\alpha = .86$ 이였다.

3.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경기도 안성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1998년 4월 1일 '도'에서 '시'로 승격되었지만 아직은 주민의 다수가 농축산업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의 대표적인 남녀중고와 대학교를 각각 1개교씩 5개교를 선정하여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500부를 배부하였고 미회수 및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345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농가를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하여 수집된 90부의 자

〈표 1〉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배경변인		빈도(%)	배경변인		빈도(%)
성별	남	199(45.7)	직업	농축산업	176(40.4)
	여	236(54.3)		직장인	140(32.2)
	계	435(100)		주부	119(27.4)
연령	40세미만	86(19.8)		계	435(100)
	40세이상~44세미만	155(35.6)	가족수	3인	44(10.1)
	45세이상~50세미만	108(24.8)		4인	184(42.3)
	50세이상	86(19.8)		5인	121(27.8)
	계	435(100)		6인이상	86(19.8)
학력	중졸미만	56(13.1)		계	435(100)
	중졸이상~고졸미만	99(23.2)	주거유형	단독주택	288(66.8)
	고졸이상~대졸미만	211(49.4)		공동주택	143(33.2)
	대졸이상	61(14.3)		계*	431(100)
	계*	427(100)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미만	182(41.8)
가족 유형	핵가족	304(70.9)		200만원이상~300만원이하	85(19.5)
	확대가족	125(29.1)		300만원이상	168(38.6)
	계*	429(100)		계	435(100)

* 무응답으로 계에 차이가 있음.

료를 더하여 총 43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배경변인)은 〈표 1〉과 같다.

4. 분석방법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하여 변인들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분석

1. 자아정체감

농촌 기혼 남녀의 자아정체감은 평균 3.46으로 중간 범위의 점수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신(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농촌 편부모의 자존감 점수가 낮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배경 변인별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은 집단이 정체감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형적으로 남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그들의 직업과 동일시하도록 기대되고, 여성들은 가정 바깥의 일보다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과 동일시 하도록 기대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의 차이는 남녀의 정체감 확득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농촌 기혼남녀의 자아정체감

배경변인		자아정체감	배경변인		자아정체감
성별	남자	3.52	직업	농축산업	3.48
	여자	3.38		작장인	3.46
	t	3.20***		주부	3.37
연령	40세미만	3.37	가족수	계	3.44
	40세이상~44세미만	3.42		F	2.22
	45세이상~50세미만	3.49		3인	3.51
	50세이상	3.51		4인	3.48
	계	3.44		5인	3.41
	F	1.82		6인이상	3.37
학력	중졸미만	3.38	주거유형	계	3.44
	중졸이상~고졸미만	3.34		F	1.85
	고졸이상~대졸미만	3.48		단독주택	3.46
	대졸이상	3.53		공동주택	3.41
	계	3.44		t	1.05
	F	3.42*		200만원미만	3.40
가족유형	핵가족	3.45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54
	확대가족	3.42		300만원이상	3.44
	t	.57		계	3.44
				F	2.69

*p<.05 **p<.01 ***p<.001

의 본질과 과정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장휘숙, 1999 : 212). 또한 교육은 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서,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남성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체감도 높게 인지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절약추구성향(3.77), 자기개발성향(3.42), 사회활동성향(3.00), 유행추구성향(2.46), 도시생활선호성향(2.39)의 순으로 나타났다(팔호 : 평균점). 전반적으로 농촌 기혼 남녀의 생활양식 성향은 절약과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 성향이 유행추구나 도시생활 선호 성향보다는 높았다.

배경변인 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40세 미만이고, 학력이 고졸 이상인 집단,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유행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았다. 사회활동의 경우, 남자 집단, 학력이 고졸 이상인 집단, 월평균가계소득이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사회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약추구성향에서는 배경변인별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5 가지 생활양식 성향 중 평균점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자기개발의 경우 학력이 높고, 가족수가 6명 미만, 공동주택 거주, 월평균가계소득이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높은 성향을 보였다. 도시생활선호의 경우, 여자, 학력이 높은 집단, 주부, 공동주택 거주, 월평균가계수입이 높은 집단이 좀 더 도시생활선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이고 연령이 젊고, 학력이 높고, 주부이며, 공동주택거주이고,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유행 및 도시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자, 학력이 높고, 소인수가족, 공동주택거주,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 성향이 높았다.

3. 가정자원만족도

학력이 높은 집단이 인적자원 및 경제자원만족도가 높아, 전반적인 가정자원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직업에 따라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환경자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확대가족 집단이 경제자원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주택거주 집단이 경제자원 및 환경자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전반적인 가정자원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가계소득은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인 집단에서 경제자원만족도가 높아 전반적인 가정자원만족도가 높게 인지 되었다(표 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확대가족 유형이며, 단독주택거주 집단인 경우 가정자원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잔존하는 전통적인 농촌생활의 특성을 일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아직 대형 공업단지가 형성되지 않은, 축산단지 및 농토를 기반으로 한 농축산업의 자본이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자아정체감 및 생활양식이 가정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및 생활양식이 가정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 5). 그 결과, 인적자원만족도에는 자아정체감($\beta = .40$)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자아정체감은 인적자원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1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원만족도에는 자아정체감($\beta = .23$), 자기개발성향($\beta = .12$)의 생활양식이 영향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8.5%로 나타났다. 환경자원만족도에는 자아정체감($\beta = .22$)이 영향변인이었고, 설명력은 4.4%로 나타났다. 전체 가정자원만족도에는 자아정체감($\beta = .36$), 유행추구성향($\beta = .11$)의 생활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약 14%였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가정자원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 변인 중의 하나로 밝혀졌으며, 생활양식 중에는 유행추구성향이 의미 있는 영향변인이였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고, 유행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큰 사람이 자신의 가정자원에 대한 지각과 수용 정도가 크고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언하면, 유행에 민감하게 접한다는 것이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농촌기혼 남녀의 생활양식

배경변인		생활양식	유행추구성향	사회활동성향	절약추구성향	자기개발성향	도시생활 선호성향
성별	남자	2.42	3.22	3.77	3.47	2.32	
	여자	2.55	2.84	3.75	3.39	2.48	
	t	1.60	5.37***	.19	1.11	1.97*	
연령	40세미만	2.67	3.05	3.73	3.51	2.37	
	40세이상~44세미만	2.35	2.94	3.80	3.41	2.47	
	45세이상~50세미만	2.53	2.98	3.64	3.67	2.36	
	50세이상	2.51	3.17	3.89	3.43	2.42	
	계	2.49	3.01	3.76	3.42	2.41	
학력	F	2.99*	1.81	2.02	.60	.46	
	중졸미만	2.25	2.82	3.72	3.25	2.17	
	중졸이상~고졸미만	2.32	2.82	3.85	3.20	2.27	
	고졸이상~대졸미만	2.57	3.07	3.71	3.48	2.45	
	대졸이상	2.69	3.29	3.80	3.77	2.65	
	계	2.49	3.01	3.76	3.43	2.40	
	F	4.95**	6.29***	.94	9.04***	4.53**	
직업	농축산업	3.48	2.39	3.04	3.80	2.24	
	직장인	3.46	2.55	3.09	3.72	2.48	
	주부	3.37	2.58	2.88	3.74	2.58	
	계	3.44	2.49	3.01	3.76	2.41	
	F	2.22	2.47	2.57	.54	6.93***	
가족 유형	핵가족	2.51	3.02	3.76	3.44	2.45	
	확대가족	2.45	2.98	3.73	3.35	3.31	
	t	.57	.54	.35	1.19	1.64	
가족수	3인	2.69	3.08	3.78	3.46	2.58	
	4인	2.53	3.07	3.79	3.51	2.45	
	5인	2.48	2.99	3.73	3.40	2.40	
	6인이상	2.32	2.90	3.72	3.25	2.25	
	계	2.49	3.01	3.76	3.42	2.41	
	F	2.35	1.04	.29	2.56*	1.82	
주거 유형	단독주택	2.44	3.01	3.78	3.36	2.29	
	공동주택	2.58	3.02	3.74	3.56	2.63	
	t	1.72	.06	.56	2.47*	4.01***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미만	2.35	2.95	3.81	3.28	2.25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63	3.23	3.75	3.68	2.47	
	300만원이상	2.58	2.98	3.71	3.45	2.54	
	계	2.49	3.01	3.76	3.42	2.41	
	F	4.96**	4.25*	.95	8.66***	5.78**	

*p<.05 **p<.01 ***p<.001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농촌 기혼남녀의 가정자원만족도

배경변인		가정자원만족도	인적자원 만족도	경제자원 만족도	환경자원 만족도	가정자원 만족도
성별	남자	3.48	3.29	3.37	3.38	
	여자	3.38	3.29	3.27	3.31	
	t	1.66	.02	1.39	1.21	
연령	40세미만	3.47	3.36	3.29	3.37	
	40세이상~44세미만	3.43	3.22	3.30	3.32	
	45세이상~50세미만	3.41	3.31	3.34	3.36	
	50세이상	3.40	3.32	3.37	3.36	
	계	3.43	3.29	3.32	3.35	
	F	.24	.74	.31	.24	
학력	중졸미만	3.26	3.06	3.17	3.16	
	중졸이상~고졸미만	3.27	3.18	3.32	3.25	
	고졸이상~대졸미만	3.50	3.37	3.36	3.41	
	대졸이상	3.60	3.42	3.37	3.47	
	계	3.43	3.29	3.32	3.35	
	F	6.75***	3.91**	1.07	4.83**	
직업	농축산업	3.46	3.35	3.46	3.42	
	직장인	3.40	3.18	3.28	3.28	
	주부	3.41	3.32	3.17	3.30	
	계	3.43	3.29	3.32	3.35	
	F	.44	2.18	6.13**	2.93*	
가족 유형	핵가족	3.43	3.23	3.29	3.31	
	확대가족	3.41	3.44	3.40	3.41	
	t	.30	2.64**	1.46	1.72	
가족수	3인	3.48	3.47	3.45	3.46	
	4인	3.46	3.26	3.32	3.34	
	5인	3.42	3.32	3.30	3.34	
	6인이상	3.33	3.23	3.30	3.28	
	계	3.43	3.29	3.32	3.35	
	F	1.00	1.18	.50	1.01	
주거 유형	단독주택	3.43	3.37	3.38	3.40	
	공동주택	3.43	3.15	3.22	3.27	
	t	.00	2.96**	2.16*	2.29*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미만	3.39	3.12	3.30	3.27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48	3.51	3.45	3.48	
	300만원이상	3.43	3.36	3.27	3.36	
	계	3.42	3.29	3.32	3.35	
	F	.62	8.96***	1.79	4.06*	

*p<.05 **p<.01 ***p<.001

〈표 5〉 자아정체감 및 생활양식이 가정자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정자원만족도							
		인적자원 만족도		경제자원 만족도		환경자원 만족도		전체	
		b	β	b	β	b	β	b	β
자아정체감		.54	.40	.38	.23	.35	.22	.44	.36
생활 양식	유행추구성향							.07	.11
	자기개발성향			.13	.12				
상수		1.55		1.53		2.11		1.64	
Adjusted R ²		.16		.08		.04		.14	
F-ratio		84.93***		21.08***		21.15***		36.26***	

*** p<.001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쉽게 수용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생활 속에서 자원화할 수 있으므로써 가정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인 정체감 수준 정도는 높지 않은 경향이었으나 성별, 학력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집단, 그리고 학력이 높은 집단이 자아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감이 사회·문화적 환경과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농촌 기혼 남녀의 생활양식은 절약추구, 자기개발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사회활동 성향이었고, 반면에 유행추구 및 도시생활선호성향은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특성별로 보면, 남자는 사회활동, 여자는 도시생활선호 성향이 높았다. 연령이 젊은 집단이 유행추구적이었고, 학력 및 월평균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유행추구, 사회활동, 자기개발, 도시생활선호 성향의 점수가 높았다. 주부 집단이 도시생활선호 성향이 커고, 가족수는 4인 이하 집단이 자기개발 성향의 점수가 높았고, 공동주택 거주 집단이 자기개

발 및 도시생활선호 성향의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촌의 생활양식은 젊을수록, 학력이 높고, 월평균가계수입이 많고, 아파트 거주자이며, 가족수가 적고, 여성이며 주부들인 경우, 유행추구, 도시생활선호 및 자기개발의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이행하는 변화의 특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째, 학력과 월평균가계수입이 높은 집단이 가정자원만족도도 높게 인지하였다. 또한 농축산업에 종사하거나, 확대가족이거나, 단독주택 거주 집단도 부분적으로 가정자원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과 월평균가계수입은 직접적인 가정자원이며, 조사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농축산업에 기반한 자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네째, 자아정체감은 가정자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또한 유행추구 성향 역시 가정자원만족의 영향 변인으로 밝혀졌고, 자기개발 성향은 경제자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체성이 확고하게 성숙되어 있으면서, 변화에 민감할 때 가정자원에 대한 의식과 지각의 수용정도도 커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유행추구적인 생활양식이 농촌 주민의 가정자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인

으로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정체감 형성과 자기개발 및 정보화를 위한 교육이 양날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도시적인 것에 비해 농촌적인 특성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전통생활문화가 우리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인기 정체감 변화를 겪고 있는 농촌 기혼남녀가 생활의 주체자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체성 확립에 기초한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시행,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 지역사회문화는 지역사회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교육이여야 한다.

또한 도시적 생활양식이 보다 크게 확산되어 있는 젊은 가정주부들이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즉, 도시적 생활편의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생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안성지역 거주자이며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집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또한 생활양식 및 가정자원의 한계가 정신적인 것에서 가시적인 것까지 그 한계를 정하기에는 매우 방대하여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척도화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명확한 한계와 정밀한 척도를 가진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특히 AIO 변수로 구성된 '생활양식' 척도는 <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들의 임의에 의해 매우 각각 사용되어 비교 연구하기에는 내용상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척도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참 고 문 헌】

- 김경신(1999).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7(3).
- 김동일 외(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애순 외(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중앙적성 출판사.

- 김영애(1996). 성격심리학. 하나의학사.
-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외(1996). 도시근교 농촌주부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2).
- 김용덕(1989). 농가생활양식변화에 관한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적 고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자경(1996).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 변수.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2).
- 백욱인 역(1994). 다쓰오 나루세 저(1988). 생활양식론. 민글.
- 이명숙(1998).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30집 2호. 안성산업대학교.
- 조영희 외(1997).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가정의 삶의 질 비교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 임창호(1990). 도시화산과 농촌환경의 변화 : 과제와 전망. 환경오염과 농업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서울대 농대 농업개발 연구소, 112-119.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학지사.
- 조혜정 외(1996). 농촌여성의 생산활동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조희금(1998).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 허경옥 외(1996). 농가주부의 시간배분연구 : 가정생산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현은민(1994). 농촌부부의 자원적정도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2(1).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Deacon, R.E. & Firebaugh, F.M.(1980). *Family resource management*. Massachusetts : Allyn and Bacon Inc.
- Nickell, P., Rice, A.S. & Tucker, S.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ed*. NY : John Wiley & Sons Inc.
- Rice, A.S., & Tucker, S.M.(1986), *Family life management 6th*, N.Y. : Macmillan Pub.
-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 HERJ 14(2). 218-225.
- * <부록 1>에 제시된 논문은 제외되었음.

〈부록 1〉 생활양식 문헌연구

저자 (년도)	제 목	연구대상·시기· 사례수	측정도구	생활양식 유형
박선영 (1986)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석 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서울시 주부 1986. 7~8 372부 분석	AIO 80문항	절제사려형, 적극활동형, 현실주의형, 가족중심형, 전통보수형, 상표 지향형, 안정우위형, 정보탐색형, 자유진보형
김혜연 (1986)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의 분석	서울시 아파트 주부 1985. 10 499부 분석	AIO 50문항	자기충실향, 소극적 침체형, 유행편리 추구형, 혁신충동형
임정빈 (1987)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부 1986. 8 421부 분석	AIO 100문항	소극침체형, 건전안정형, 소극적개인주의형, 보수적전통주의형, 개방 적유행추구형, 현실안정형, 건전절약형
임정빈 임혜경 (1988)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서울시 주부 1987. 11. 514부 분석	AIO 68문항	보수적안정형,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 소극침체형, 현대적진보형
강미옥 (1988)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분석과 구 매 행동에 관한 연구	군산시 주부 1988. 6. 407부 분석	AIO 30문항	절제사려형, 자아성취형, 가족충실향, 정보탐색형, 상표지향형, 변화 추구형, 사교형, 집단참여형, 적극개방형
강이주 (1989)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 구	서울시 주부 1990. 1~2. 559부 분석	AIO 50문항	편의주의형, 근면성실형, 생존유지형, 성취동기형
류정숙 (1991)	생활양식에 따른 저축상품 속성 별 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월소득 70만원이상 성인 1991. 3. 328부 분석	AIO 60문항	점소성실성향, 전통보수성향, 여유안정성향, 합리이타성향, 과시물질 추구성향
정용선 최수행 (1990)	주부의 주거지역 특성에 따른 라 이프스타일 연구	부산시 주부 1988. 7.	AIO 87문항	단독주택지역: 유행추구 및 패션생활지향, 적극활동 및 미래생활지향, 마이홈주의 및 레저생활지향, 실용주의 및 완벽주의지향, 전통적 가 정생활지향, 사회생활참여지향, 알뜰구매 및 절약생활지향 아파트지 역: 유행추구 및 패션생활지향, 마이홈주의 및 레저생활지향, 알뜰 구 매 및 절약생활지향, 생동감 있는 생활지향, 자유롭고 외향적인 생활 지향, 전통적 가정생활지향, 여유없는 생활
문성희 (1992)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일 반화된 구매관여	부산시거주 주부 1991. 7. 326부 분석	AIO 70문항	소극침체형, 적극활동형, 나태무기력형, 편의유행추구형, 건실알뜰형
성혜영 (1993)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 만 족	서울시 주부 1993. 7. 479부 분석	AIO 53문항	현대적 향유형, 보수전통주의형, 건전활동형, 소극적 침체형
양남희 김숙향 (1993)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승용차 정보 탐색 활동에 관 한 연구	광주직할시 주부 1993. 3. 410부 분석	AIO 42문항	향유 편의주의형, 변화추구형, 보수적 성실검약형, 합리주의형, 알뜰 살림추구형, 소극침체형, 유행민감형
조형모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 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서울,부산,대구,광주, 대전 13-59세 남녀 1994. 1,000부 분석	99문항	서구지향적 자아추구형, 현실부정적 자아억제형, 미래지향적 갈등형, 전통지향적 현실순응형, 감각지향적 자유분방형, 보수적 현실향유형
이정우 외 7인 (1996)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 일 및 가정경영의식	서울,부산,광주,대전, 전주,강릉 만35세이하 기혼남녀 1995. 12. 1,645부 분석	AIO	유행추구형, 개성증시형, 변화지향형, 적극활동형
이정우 외 7인 (1997)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 일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	"	"	유행추구형, 개성증시형, 변화지향형, 적극활동형
고애란 이영숙 (1998)	비거주지 의류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쇼핑성향 및 라이프스타일 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대구시 20세 이상의 여성 1995. 1~6. 635부 분석	11문항	스포츠/사교활동, 문화활동, 가족활동

〈부록 2〉 생활양식 요인분석표

문 항 내 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ommu-nality
	유행 추구 성향	사회 활동 성향	절약 추구 성향	자기 개발 성향	도시생 활선호 성 향	
30. 화장이나 머리손질에 신경을 쓴다.	.80					.64
32. 옷과 구두 등에 뚜렷한 개성이 있다.	.76					.63
31. 외출시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	.74					.60
33. 유행하는 옷에 관심이 많다.	.69					.56
36. 매일 입는 옷에 신경을 쓴다.	.63					.54
28. 무슨 일이든 유행을 의식하며 생활한다.	.59					.55
29. 새로난 쇼핑센터, 음식점 등에 가보려 한다.	.45					.49
14. 자발적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77				.62
13. 동창회, 모임등에 참석해서 교제를 넓힌다.		.68				.55
11. 기회가 있다면 --단체의 일을 맡겠다.		.62				.45
9. 다른 사람에 비하여 아는 사람이 많다		.60				.43
12.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많다.		.43				.44
22.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려 한다.			.73			.54
21. 유행이 지난 옷이라도 손질하여 입고 있다.			.71			.55
20.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다.			.64			.43
19. 귀찮아도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손수 만든다.			.64			.45
2. 교양, 지성의 함양에 관심이 많다.				.71		.56
4. 취미, 레저 등 여가생활을 추구한다.				.59		.44
6. 자신의 능력개발을 추구한다.				.55		.40
10.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싶다.				.53		.44
39.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69	.49
35. 한식보다 양식을 더 좋아 한다.					.61	.49
34. 침대생활이 좋다.					.47	.42
42.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즉시 사려고 한다.					.43	.39
Eigen Value	5.24	2.78	1.81	1.22	1.16	50.9
Pct. of Var.	21.8	11.6	7.5	5.1	4.8	